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육주체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종 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정 희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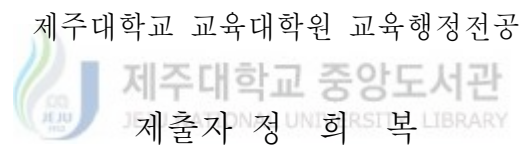
2005년 8월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육주체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중 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정희복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국문 초록>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육주체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정 희 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박 종 필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교육관의 영역을 '교육에 대한 가치면', '학교 교육의 운영면',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으로 나누어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중 교사는 제주시내 12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477명을 대상으로 하여 하였고, 학생은 제주시내 5개 고등학교 학년별 1개 반씩을 선정하여 4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부모는 제주시내 거주하는 학부모 512명을 대상으로 총 148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의 가치관이나 심성 배양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학생 선도와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문제 학생에 대한 선도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학생 폭력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이라고 교육주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충실한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연구’와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자재 확충’과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로와 대학 진학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이 바라는 ‘적성에 맞고 잠재성 있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특기·소질 개발과 학력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과외 수강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교사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입시 제도는 ‘신중히 결정하고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주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 제도는 ‘교육 백년지대계’의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것을 종합해 볼 때, 교육주체들은 ‘인성교육’과 ‘진로·진학 교육’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주체 간에 ‘교육에 대한 가치관, 학교 교육의 운영, 교육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이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주체들은 ‘혼과 혼의 대화, 정성과 정성의 호흡, 정열과 정열의 만남’으로 가치관의 이질성과 대립을 줄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방향 감각을 기르고 교육에 대한 신념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교육의 주체	4
2. 교육관의 개념	5
3. 교육관 연구의 접근	11
4. 건전한 교육관의 조건	13
5. 교육관에 대한 선행 연구	15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3
1. 연구 방법 및 대상	23
2. 연구의 도구 및 내용	26
3. 자료의 처리	2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9
1. 교육에 대한 가치면	29
2. 학교 교육의 운영면	39
3.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	49
V. 요약 및 결론	59
1. 요약	59
2.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8
<부록: 설문지>	70

〈표 목차〉

〈표 II-1〉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른 교육관의 유형	16
〈표 III-1〉 교사의 일반적 특성	23
〈표 III-2〉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24
〈표 III-3〉 학생의 일반적 특성	25
〈표 III-4〉 조사 대상별 설문지 회수 상황	26
〈표 IV-1〉 설문 영역 및 문항 구성 표	27
〈표 V-1〉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 결과	29
〈표 V-2〉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분석 결과	30
〈표 V-3〉 바람직한 청소년 심성에 대한 분석 결과	31
〈표 V-4〉 대학 진학 목적에 대한 분석 결과	32
〈표 V-5〉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33
〈표 V-6〉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	34
〈표 V-7〉 질 높은 수업에 대한 분석 결과	35
〈표 V-8〉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분석 결과	36
〈표 V-9〉 교사의 지도력 향상에 대한 분석 결과	37
〈표 V-10〉 교사의 사명감에 대한 분석 결과	38
〈표 V-11〉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분석 결과	39
〈표 V-12〉 바람직한 학교에 대한 분석 결과	40
〈표 V-13〉 학생의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41
〈표 V-14〉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분석 결과	42
〈표 V-15〉 심화반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43
〈표 V-16〉 진로 진학을 위한 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44

<표 V-17> 인성 교육 효과가 미흡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45
<표 V-18> 바람직한 인성 교육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46
<표 V-19> 바람직한 학생 지도에 대한 분석 결과	47
<표 V-20> 청소년의 심성 배양에 대한 분석 결과	48
<표 V-21>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49
<표 V-22>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	50
<표 V-23> 과외 수강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51
<표 V-24> 문제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	52
<표 V-25> 학교 폭력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53
<표 V-26>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54
<표 V-27> 학교 운영 의견 수렴에 대한 분석 결과	55
<표 V-28> 학사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56
<표 V-29> 대학입학 전형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57
<표 V-30> 대입 제도의 변경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58

<그림 목차>

<그림 1> 구조·기능주의적 행위 모형	6
<그림 2> 사회적 행위 모형	7
<그림 3> Schutz의 행위 모형	8
<그림 4> 교육관의 개념	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민주화·자유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교육 가치관의 혼란과 교직 사회의 갈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실 붕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하여 교육의 시대 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차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결과인 동시에 가치관과 교육관이 혼란을 면치 못하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조흥기, 1990).

‘교육은 올바른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고, ‘교육을 잘 받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은 ‘교육 현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두 측면의 생각은 개인의 내부에서 공존하거나 혹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본다면, 가치관과 지각이 다를 경우 행동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이인호, 1981). 이러한 개인의 갈등이나 혼란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교육단체, 교육기관 서로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안정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듯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관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은 학교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물론 교육 문제에 대한 시각과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교육 활동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박윤도, 1990).

교육 관련자들의 교육관이 서로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거나 상호 대립되는 정도에 이르면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함께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교육관이 어느 면에서 일치하고 어느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으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교육의 제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교사의 사기 진작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은 어떠한가?

둘째,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이 교육활동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의 주체

가. 협의(狹義)의 교육 주체

교육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객체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이상적 교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인 교육자와 객체인 학습자가 매개체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은 교육 성립을 위한 3요소가 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엄밀한 의미의 교육은 성립되지 않는다. 교육의 3요소 중, 교육자 혹은 교사를 교육의 주체라 한다. 그리고 피교육자 혹은 학습자를 교육의 객체라고 부른다. 또한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상호 교섭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교육의 재료, 즉 내용을 교육의 매개체라 부른다.

교육이 교육자의 주도적 계획과 실천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 교사, 부모, 등 교육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남궁용권, 1997: 55).

나. 광의(廣義)의 교육 주체

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형식적 교육에서는 교육자인 교사가 교육의 주체요 학생은

객체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교육은 교사의 사전 계획에 의해서 교사가 수업을 통제하고 학생은 교사의 수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쳤다. 모든 교육은 교사의 통제 하에 일률적, 타율적으로 전개되고 학생의 자주적인 측면은 일체 용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교육은 아동, 학생에게 주체성을 두어 생각하게 되었다.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아동, 학생 자신의 욕구, 희망, 흥미 등에 따라 학습 능력에 의거해서 주체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이란 이상적인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삶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타고난 잠재적 가능성을 최선의 교육 환경과 교육 방법을 작용시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간으로 신장시키는 일이다(남궁용권, 1997: 28).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형성의 주체는 학생이며, '배우는'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볼 때, 교사·학부모는 물론 학습자인 학생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관'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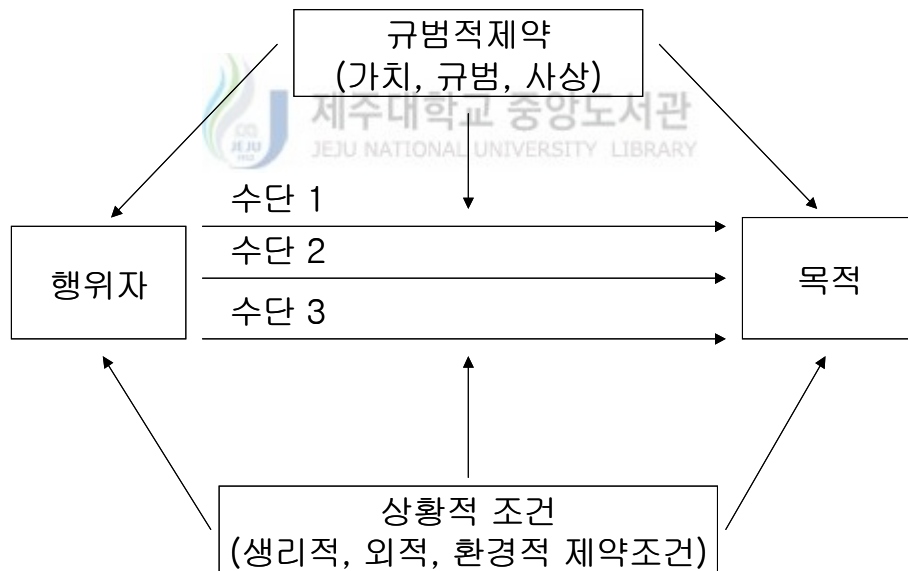
교육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관의 개념적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명료화·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교육관 유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이인호(1981)는 교육 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 보고, 구조기능론과 현상학에서의 사회적 행위 모형을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대비되

는 행위이론인 구조·기능주의적 입장과 현상학적 입장에서 교육관의 위치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구조·기능주의적 행위이론에서 본 교육관의 개념

대표적 구조기능론자인 Parsons(1962)의 행위이론은 초기이론과 후기이론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초기이론은 단위 행동의 자발성에 그 초점을 두었으며, 목표 추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선택 결정 과정이 작용한다 보았다. Parsons는사람들의 행위를 행위자 개개인들의 주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을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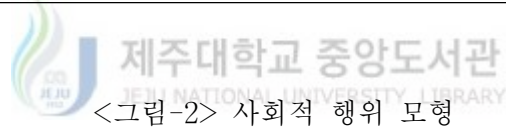


<그림-1> 구조·기능주의적 행위 모형

출전: 이인호(1980), 교육관의 유형·갈등 및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Parsons(1962)가 후기에 제안한 ‘사회적 행위모형’은 <그림-2>와 같다.

	인성 A	인성 B	인성 C
사회 체제 1	역할 1-A	역할 1-B	역할 1-C
	동기적측면		
	가치적측면		
사회 체제 2	역할 2-A	역할 2-B	역할 2-C
사회 체제 3	역할 3-A	역할 3-B	역할 3-C
			문화체제



출전 : 이인효(1980), 교육관의 유형·갈등 및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Parsons(1962)가 말하는 사회적 행동이란 인성과 사회체제가 주체와 객체로 만남으로써 보여주는 역할을 말한다. 이때의 역할은 인성이 가지는 동기의 측면과 인성이 그 사회체제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의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역할은 인성과 사회체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구조기능론의 입장에서 교육관을 규정한다면 그 문화에서의 교육에 대한 가치 규범, 그 사회에서의 교육체제에 대한 역할기대, 그리고 개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의 세 요인이 교육관에 포함될 수 있다.

나. 현상학의 행위이론에서 본 교육관

구조기능론이 객관적 실체로서의 현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반면, 현상학은 주관적으로 해석된 것으로서의 현실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혹은 ‘세계에 대한 지식’이 행위모형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대표적인 현상학자 중의 한 사람인 Schutz(1973)의 행위모형은 <그림-3>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3> Schutz의 행위 모형

출전 : 이인효(1980), 교육관의 유형·갈등 및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Schutz(1973)에 있어서는 개인이 세계의 중심이 되며, ‘의미의 주관적 해석’과 ‘상황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으뜸가는 행위 양식이다. Schutz가 말하는 지식은 ‘일상생활의 지식’, ‘상식적인 생각’ 등과 같은 말이며, 사람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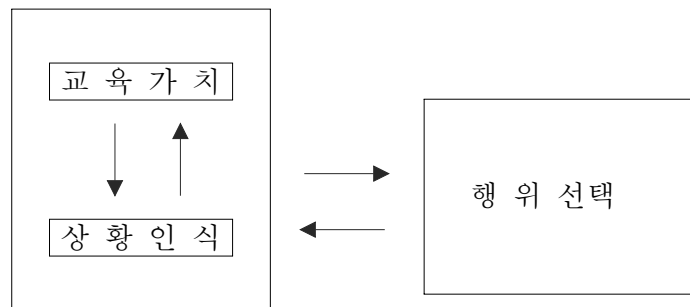
Schutz의 사회적 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관을 ‘세상과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형성된,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해석된 교육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교육학자들이 본 교육관의 개념

박준희(1975)는 교육관을 「교육이라는 특별한 작용과 행위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라고 정의하여 교육관을 가치관의 하위 개념으로 다루었으며 교육관을 교육 가치관, 교육 목적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중재(1980)는 교육관을 「교육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의미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인 의미구성은 「무엇이 보다 가치로운가?」에 관한 주관적 가치 의식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 인식이란 ① 교육에 비추어진 상(象) ②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③ 상황과 실제에 대한 평가 의식 ④ 교육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 등을 말한다. 개인은 가치와 상황 인식의 상호 작용의 결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교육관의 개념

출전: 조흥기(1990), 교원의 교육관·교직관 조사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이러한 교육관의 개념과 관련하여 교육관에는 가치론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했다. 가치론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및 기타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고,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제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배천웅 외, 1986).

이돈희(1985)는 교육관을 「교육 행위의 전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선택과 판단의 기준 체계」라고 정의하여 교육관에서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 선택에 있어서의 가치 의식과 신념으로서 판단의 기준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교육관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제도적 교육의 주체인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관으로서 그것은 흔히 ‘교육 이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도적 교육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할 때 그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실천하는 교원이나 교육 이론가의 교육관으로서 고도의 이론적 체계를 가졌을 때 ‘교육 사상’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 대중의 ‘통속적 교육관’이다.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이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피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이나 기대 등 교육적 선택이나 판단의 과정에 작용하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육관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구조기능론의 입장에서 교육관은 그 문화에서의 교육에 대한 가치규범, 그 사회에서의 교육체제에 대한 역할 기대, 그리고 개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의 세 요인이 교육관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 행위 이론의 관점에서 교육관은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

된,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해석된 교육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박준희(1975)는 교육관을 「교육이라는 특별한 작용과 행위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종재(1980)는 교육관을 「교육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의미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인 의미구성은 「무엇이 보다 가치로운가?」에 관한 주관적 가치 의식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이돈희(1985)는 교육관을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 선택에 있어서의 가치 의식과 신념으로서 판단의 기준」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3. 교육관 연구의 접근

교육관의 연구는 크게 '역사·철학적인 연구'와 '경험 과학적인 연구'로 나누어진다. '역사·철학적 연구'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관과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험 과학적 연구'는 현재 사회 일반이 지니고 있는 교육관의 파악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배천웅 외, 1986).

가. 역사적·철학적 접근

역사적·철학적 교육관 연구의 접근에 의하면 한국인은 교육의 내면적 가치보다는 교육의 결과로 얻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서 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교육 내용의 체제나 원칙은 무시한 채 개인의 생활 즉 가족의 행복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시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성(知性)의 계발보다는 도덕성, 품성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사

고를 중시하기보다 집단적이고 보수적인 행동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역사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인의 교육관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파악된 전통적 교육관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는 교육적 좌표를 설정하거나 교육적 전통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나. 경험·과학적 접근

인간의 의식이 사회 집단으로 나타날 때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사회의 가치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사회적 사실의 실재 현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교육관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역으로 사회적 실재로 존재하는 가치관이나 교육관은 하나의 문화 가치로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가치관은 사회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어느 사회나 단일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정적(靜的)이라기보다는 변화의 과정이며 새로운 가치관이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이입(移入)되어 지배적 가치관(중핵적 가치관)과 변동적 가치관(주변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다(이돈희, 1985).

가치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혼재된 가치관의 혼란이나 그릇된 교육관 등을 지적하지만 가치관이나 교육관 개념 자체에 대하여 통일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분명한 의견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건전한 교육관의 조건

이돈희(1985)는 건전한 교육관의 조건을 신념 요소들의 내적 통합성, 교육 외적 부분의 가치관의 일관성,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가. 신념 요소들의 내적 통합성

교육관이 내적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신념 요소들 간의 모순과 대립이 극소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완전한 통합성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잘 통합된’ 혹은 ‘보다 덜 통합된’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교육관의 내적 통합성을 잃고 있는 것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중이 교육 활동과 교육 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난다. 둘째, 교육적 신념 요소를 제공하는 가치 기준 혹은 가치관의 다양성이 허용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

교육관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개체간의 혹은 집단 간의 가치관적 이질성 혹은 대립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관의 이질성 혹은 대립은 다원적 가치관이 허용되는 개방 사회에서 반드시 악덕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질적인, 때로는 대립적인 교육관을 공존시키는 원리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교육관 혹은 가치관의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개방적 심성과 신념 체계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육 외적 부분의 가치관의 일관성

통합된 교육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 외적 부분을 지배하는 가치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게 되면, 그 교육관은 사회 전체의 가치관 혼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가 있다. 예컨대 교육과 정치의 대립 교육과 경제의 대립 혹은 교육과 종교의 대립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능적인 상호 의존성을 거부하고 주도권의 쟁탈을 위한 경쟁 혹은 투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체제상, 보다 힘 있는 편이 다른 편을 예속화 혹은 도구화시켜 버리게 된다. 사실상 한국 사회의 경우에 교육은 표면적 대립과 투쟁은 없었으나 그러한 긴장 관계는 있어 왔고 교육은 항상 열세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교육을 정치나 경제의 도구라는 생각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그 자체를 보호할 힘은 없는 셈이다. 오히려 교육 외의 다른 부분의 지원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교육 종사자들이 그들의 전문직적 자율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는 취약 상태에 있고 그 만큼 교육은 다른 부분의 힘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 좌우 되어 왔다.

다.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성

광복 후의 교육은 제도의 변화는 수없이 겪었지만 교육 자체의 성격 변화는 적었다. 예컨대 교육 대상의 양적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제의 기본적인 구조, 교육 조직의 형태, 교육 내용의 체제, 교육 방법의 원리 등은 별로 변화된 바가 없다.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는 항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변화에의 적응성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외부의 도전을 받아 자체 변화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은 변화의 의지와 방향 감각을 소유해야 하고 이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교육 전문가 집단은 대중의 교육관이 내적 통합을 높이고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문과 적응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교육 내적-외적 변화에 따르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포용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교육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개인 혹은 집단에 가치관적 이질성 혹은 대립을 줄이고 통합된 교육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개방적 심성과 신념 체계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된 교육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사회, 행정, 경제 등 교육 외적 부분을 지배하는 가치관에 혼란이 없어야 하고, 자신의 교육관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주체들은 교육 내적-외적 변화에 따르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포용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육관에 대한 선행 연구

가. 교육관의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

1)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교육관 연구

Singleton(1979)은 해방 이후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발전의 이미지가 한국 사회의 교육관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한국사회의 교육관을 정부 주도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사회적 교육관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의 <표Ⅱ-1>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Ⅱ -1〉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른 교육관의 유형

교육관의 유형	유교적 교육관	사회적 교육관	개인적 교육관	인간적 교육관
교육목표	사회적 조화: 仁·和속의 사회 참여, 도적성교육	적절한 진로와 사회적 지위를 찾도록 합리적으로 통제함.	사회적 지위향상, 최고의 교육 받을 기회 획득	개인의 가능성 계발, 자아실현, 교육 기회의 균등
교육내용 및 방법	도덕교육, 고전교육. 밀접한 학생-교사관계	성적에 의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학생을 선발	학업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학생을 준비시키고 지도함.	보편교육과 개방된 공교육 제도
교사의 역할 및 자질	모범자로서의 교사, 폭넓은 교양, 도덕적 인격	국민교육 대행자로서의 교사, 국가 의식, 발전의식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교과 지식	협력자로서의 교사, 인간적 이해
아동상	도덕적 아동, 정직, 예절 중시	애국적 아동, 국가 의식 강조	경쟁적 아동, 학업성취 중시	인간적, 심미적 아동
교육기회	교육수준 유지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제한	인력수요 계획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한정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의 확대를 요구함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진학 기회의 개방

유교적 교육관은 조선 이후, 시대에 따라 양상은 달리 해 왔으나 본질적으로 ‘仁·和’를 중시하는 도덕성과 선비정신의 함양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교육관이다.

사회적 교육관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통제하는 사회적 수문장 즉, 현재 사회 구조 틀 속에서 한정된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마찰이 적게 배분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단으로 교육을 보는 관점이다.

개인적 교육관은 교육을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보는 교육관이다. 출세의 경쟁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를 찾는 출세주의, 간판주의, 입시위주의 교육관은 여기에 속한다.

인간적 교육관은 교육을 인간의 자질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교육관이다. 인간적인 교육관은 대부분의 교육자, 그리고 교육계에서 추구하는 교육관으로 인간계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 개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2) 인간의 본성에 따른 교육관

정재걸(2001: 11-22)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교육관의 유형을 ‘주물(鑄物) 모형의 교육관’, ‘도토리 모형의 교육관’, ‘만두 모형의 교육관’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주물(鑄物) 모형의 교육관

인간의 선악은 어떠한 의도된 환경, 즉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서양 교육의 초창기부터 지배적인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관을 ‘주물(鑄物) 모형의 교육관’이라고 부른다. 주물이라고 하는 것이 쇳물을 부어 넣어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내듯이, 교육이란 아동에게 일정한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 그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교육관이다.

주물모형의 교육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떤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틀이다. 그 틀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교육 받은 인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틀을 봉어빵 모양으로 만들면 봉어처럼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며, 그 틀은 국화빵 모양으로 하면 국화빵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틀을 교육학에서는 교육 목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틀을 채우는 내용물, 즉 교육 내용이다. 이 모형에서는 누가(교사) 누구에게(학생) 그 내용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다. 그래서 주물 모형의 교육관을 ‘교육 내용 중심 교육관’이라고 부른다. 흔히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을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교육 내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도토리 모형의 교육관

Rousseau 이후 아동은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점차 인식되어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내용이 아니라 아동의 내적 자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육관을 ‘아동중심 교육관’이라고 부른다. 이 교육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자 자신이다. 이 교육관에서는 학습자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이미 특정한 능력이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따라서 이러한 아동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교육관을 주물모형에 대비하여 ‘도토리 모형’이라고 부른다. 즉, 도토리 속에는 이미 커다란 참나무로 자랄 가능성이 들어 있으므로 교사는 그 도토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 교육의 전통에 있어서 도토리 모형의 원조는 Socrates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Socrates의 교육관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비주류였다. 주류는 역시 당시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소피스트의 교육관이었다. 이후 그의 교육관은 오랜 암흑기를 거쳐 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관으로 전개되었다. Rousseau의 아동중심 교육관은 Pestalozzi와 Froebel을 거쳐 마침내 미국의 J. Dewey로 계승되었던 것이다.

다) 만두 모형의 교육관

유불선(儒佛仙)을 통합한 사상 체계로 여겨지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우주 삼라만상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으며, 우주 삼라만상은 기(氣)의 응집에 의해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또 하나의 전통인 불교 교육에서도 우주 삼라만상은 무엇이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의 마음 속에 모든 진리가 이미 들어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모형을 ‘만두 모형’이라고 한 것은 주자(朱子)가 마음을 만두로 비유한 것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 마음은 만두와 같이 그 속에 온갖 잡다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두모형에 있어서 교육이란 외부의 지식을 교사로부터 전달받는 것도 아니요, 학습자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도 아니다. 만두모형에 있어서 교육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여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습자 자신이 마음을 탐구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극히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것이다. 이러한 암중모색(暗中摸索)에 있어서 스승은 안내자요, 등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두 모형의 교육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에 대한 존경일 수밖에 없다. 교육의 시작도 스승에 대한 존경이고 교육의 마지막도 스승에 대한 존경인 것이다.

나. 교육주체의 교육관에 관한 선행 연구

1)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관 비교 연구

정현종(1993)은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관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영역을 ‘교육 목적 및 내용관’, ‘교육 방법관’, ‘교사관’, ‘학생관’, ‘교육 성과관’

나누고 다시 18항목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의 목적 및 내용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교사·학부모 모두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학생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과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자는 쪽에 학부모 집단이 선호하고 교사들은 지역적 특수성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 방법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열반 편성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체벌의 사용은 적절히 사용되 교육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과외, 보충수업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은 방학 중에는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교사들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교사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교사로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을 대해 주시는 분을 선호하였다. 교원의 중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 학부모 집단은 전문 지식과 사명감을 교사 집단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처우나 사회 일반의 존경심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요즘의 중·고교 학생들의 학습 열의는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들의 질서·도덕의식이나 경로 효친 의식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 발생 원인에 대하여 학부모 집단은 가정 문제를 첫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교사 집단은 입시 위주의 학교 풍토 때문이라고 보았다.

교육 성과관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 집단 공통적으로 대학 진학의 이유로 사회적 지위 향상·경제적 부의 증대를 심리적 만족이나 자아실현 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서 세속적인 출세의 도구로 교육을 보는 시각이었다.

2)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 연구

박운도(1990)는 교육관의 영역을 크게 일반적 가치관, 교육관으로 나누고, 교육의 본질면과 학교교육제도의 운영면,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면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13개의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교육내용의 가치의식에서 창의성에 높게 인식하고 있고, 교과지식의 습득은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학생 집단은 직업과 미적영역에 관심도가 높았다. 이해(理解)형 교사가 훌륭한 교사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교육 효과면에서 사회적 지위향상, 심리적 만족감, 경제적 부의 증대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영향 요인으로 학부모·교사 집단은 '본인의 노력과 열의'에 학생집단은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에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제도의 운영 면에서는, 체벌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체벌 실태 평가에서 보면 교사·학부모 집단은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비해 학생 집단은 그릇된 행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교사의 가정 방문에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 교사 집단이 가장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우열반에 대하여 학부모 집단은 찬성하는데 비해 교사 집단은 반대하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졸업장 제도는 긍정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 집단의 반응률이 높은 편이다.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교육기회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교직에 대해 경제적 처우는 다소 낮게 인식되는 반면 사회 일반의 존경도는 다소 높게 평가하였고 학생집단이 교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존경도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

3)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관 비교 연구

김현의(1987)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관을 조사 비교하기 위하여 교육관의 영역을 ‘교육의 본질적인 면’, ‘학교제도의 운영적 면’, ‘교육에 관한 의식적인 면’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이상적인 인간상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이상적인 교육내용으로 ‘사고력·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원하고 있다. 이상적인 교사상은 ‘실력’이나 ‘지도 기술’ 보다는 학생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교사상을 원하고 있다. 교육 기회 획득의 제약 요인은 학생의 ‘학습능력 부족’으로 보고 있다. 진로 결정 시기는 ‘조기 결정’을 원하고 있다. 학교방침의 인식 면에서 학생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으로 보고 있다. 학교교육의 역점사항으로 인격·예절지도를 원하고 있다. 교육관에 대한 연구결과가 유형 규명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부모와 사회인의 건전한 교육관 형성으로 이끌 수 있는 연구로 심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사·학부모·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통계 자료 분석에 의존한 양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교사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집단	사례수	백분비(%)
성별	남자	352	73.8
	여자	125	26.2
직위	평교사	354	74.0
	부장교사	114	23.9
	교감, 교장	9	1.9
교육 경력	10년 이하	67	14.0
	11-20년	227	47.6
	21-30년	151	31.7
	31년 이상	32	6.7
근무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324	67.9
	실업계 고등학교	153	32.1
계		477	100

조사 대상자 중, 교사는 제주시내 12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학교는 일반계 8개교, 실업계 4개교이고, 국·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7개교이며, 남학교 3개교, 여학교 4개교, 남녀공학 5개교이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481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47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집단	사례수	백분비(%)
학부모 성별	남자	99	18.7
	여자	413	81.3
자녀 학년	1학년	154	29.9
	2학년	182	35.5
	3학년	176	34.4
	30대	8	1.6
학부모 연령	40대	455	88.7
	50대	48	9.4
	60대	1	0.2
계		512	100

조사 대상자 중, 학부모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3개 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부하고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9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51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3>과 같다.

<표III-3>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집단	사례수	백분비(%)
성 별	남자	229	46.1
	여자	267	53.9
학 년	1학년	167	33.7
	2학년	161	32.3
	3학년	168	33.9
학교 계열	일반계 고등학교	302	61
	실업계 고등학교	194	39
계		496	100

조사 대상자 중, 학생은 제주시내 5개 고등학교 1학년별 1개 반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5개 고등학교 중 일반계 3개교, 실업계 2개교이고, 국·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3개교이며, 남학교 2개교, 여학교 2개교, 남녀공학 1개교이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06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49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2005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조사 대상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은 <표 III-4>와 같다.

〈표 Ⅲ-4〉 조사 대상별 설문지 회수 상황

집 단	대 상	회 수	회수율	불성실한 응답	최종 통계 처리
교사	600	481	80.17%	4	477
학부모	720	519	72.8%	7	512
학생	600	506	84.3%	10	496
계	1920	1506	78.4%	21	1485

2.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조흥기(1990)와 박윤도(1990)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선행 연구 및 문헌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의 유형을 교육관의 개념, 교육관 연구의 접근 방법, 교육관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교육에 대한 가치면’과 ‘학교 교육의 운영면’,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으로 영역을 나누고 하위 항목을 각 영역별로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은 <표Ⅲ-3>과 같다.

〈표 III-5〉 설문 영역 및 문항 구성 표

영역	항목
교육에 대한 가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관
	바람직한 인간상
	바람직한 청소년의 심성
	대학 진학 목적
	진학을 할 때 중요시하는 것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
	수준 높은 수업을 교사의 준비
	바람직한 교사상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
	교사의 사명감
학교 교육의 운영면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바람직한 학교
	학생의 학력 향상 방안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
	심화반 운영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인성교육 효과 미흡 원인
	바람직한 인성 교육 방안
	효과적인 학생 생활 지도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 배양 방법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	수준별 수업의 효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과의 수강 문제
	문제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
	학교 폭력 발생 여부
	체벌의 필요성
	학교 운영 의견 수렴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
	대입 전형 방법
	대입 제도의 변경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 변인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교육 주체의 '교육에 대한 가치면', '학교 교육의 운영면',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에 대한 교육관을 알아보기 위해 χ^2 통계치를 이용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교육에 대한 가치면

가. 인생의 가치관

‘학생이 장차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와 같다.

<표 IV-1>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뒤편하고 신뢰받으며 사는 것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	미응답
학생	154 31.0%	70 14.1%	92 18.5%	167 33.7%	0
학부모	236 46.1%	21 4.1%	127 24.8%	125 24.4%	0
교사	244 51.2%	9 1.9%	156 32.7%	64 13.4%	0
계	634 42.7%	100 6.7%	375 25.3%	356 24.0%	0
	χ^2		79.29 ***		

*** p<.001

위의 <표 IV-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뒤편하고 신뢰받으며 사는 것’이 교사 51.2%, 학부모 46.1%, 학생

3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은 학생이 33.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학부모는 24.4%, 교사는 13.4%로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교사 32.7%, 학부모 24.8%, 학생 18.5%로 나타났다.

학생은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과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을, 학부모와 교사는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과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바람직한 인간상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인물이 되기를 가장 바라는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전공분야에 실력이 뛰어난 인물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인물	친화력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인물	미응답
학생	189 38.1%	70 14.1%	54 10.9%	167 33.7%	1 0.2%
학부모	140 27.3%	79 15.4%	111 21.7%	176 34.4%	0
교사	39 8.2%	255 53.5%	97 20.3%	80 16.8%	2 0.4%
계	368 24.8%	404 27.2%	262 17.6%	423 28.5%	3 0.2%
χ^2			331.84***		

*** p<.001

위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바람직한 인물에 대하여 교육주체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이 교사는 53.5%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부모는 15.4%, 학생은 14.1%로 낮게 나타났다. ‘전공 분야 실력이 뛰어난 인물’은 학생 38.1%, 학부모 27.3%로 나타났으나 교사는 8.2%로 나타났다. ‘친화력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회적 인물’은 학부모 34.4%, 학생 33.7%, 교사 16.8% 순으로 나타났다.

다. 바람직한 청소년의 심성

‘청소년기에 함양되기를 바라는 심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IV-3>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V-3> 바람직한 청소년의 심성에 대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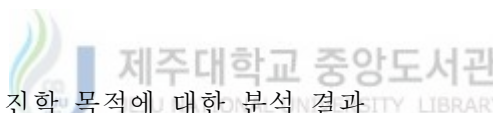
문항 주체	밝고 긍정적인 심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원만한 대인 관계와 친화력	인내심과 자립심	미응답
학생	165 33.3%	146 29.4%	138 27.8%	42 8.5%	0
학부모	239 46.7%	129 25.2%	94 18.4%	49 9.6%	0
교사	173 36.3%	270 56.6%	17 3.6%	12 2.5%	1 0.2%
계	577 38.9%	545 36.7%	249 16.8%	103 6.9%	1 0.1%
	χ^2	201.59***			

*** p<.001

위의 <표 IV-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기에 함양되기를 바라는 심성’에 대한 인식이 교육주체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교사는 56.6%로 나타났으나, 학생은 29.4%, 학부모는 25.2%의 반응이 나타났다. ‘밝고 긍정적인 심성’은 학부모 46.7%, 교사 36.3%, 학생 33.3%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은 ‘밝고 긍정적인 심성’, 교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청소년기에 가장 함양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대학 진학 목적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4>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V-4> 대학 진학 목적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안정된 직업 을 갖고 사회 생활을 해나 감	직업 사회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함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배양함	교양과 경험 을 쌓고 인 격을 형성함	미응답
학생	268 54.0%	30 6.0%	106 21.4%	82 16.5%	9 1.8%
학부모	321 62.7%	18 3.5%	84 16.4%	84 16.4%	4 0.8%
교사	169 35.4%	31 6.5%	117 24.5%	155 32.5%	5 1.0%
계	758 51.0%	79 5.3%	307 20.7%	321 21.6%	18 1.2%
	χ^2	91.99***			

*** $p<.001$

위의 <표 IV-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함’이 학부모 62.7%, 학생 54.0%, 교사 35.4%로 나타났다. ‘교양과 경험을 쌓고 인격을 형성함’은 교사 32.5%, 학생 16.5%, 학부모 16.4%로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교사가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함’과 ‘교양과 경험을 쌓고 인격을 형성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 사항

‘학생이 진학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 사항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대학의 수준	장래성 있는 학과	적성에 맞는 전공	합격 가능성	미응답
학생	40	135	296	20	4
	8.1%	27.2%	59.7%	4.0%	0.8%
학부모	23	183	300	6	0
	40.5%	35.7%	58.6%	1.2%	
교사	15	103	340	18	1
	3.1%	21.6%	71.3%	3.8%	0.2%
계	78	421	936	44	5
	5.3%	28.4%	63.0%	3.0%	0.3%
χ^2			53.19***		

*** p<.001

위의 <표 IV-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교육주체들은 대체로 ‘적성에 맞는 전공’이 교사 71.3%, 학생 59.7%, 학부모 58.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래성 있는 학과’가 학부모 35.7%, 학생 27.2%, 교사 21.3%로 반응이 나타났다.

‘대학 수준’이나 ‘합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5.3%와 3.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바.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

‘가장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는수업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하는 수업	학습자료나 기자재를 잘 활용하는 수업	학생이 주체 가 되도록 하는 수업	미응답
학생	168 34.1%	270 54.4%	14 2.8%	29 5.8%	0
학부모	107 20.9%	293 57.2%	51 10.0%	56 10.9%	4 0.8%
교사	407 27.4%	787 53.0%	76 5.1%	185 12.5%	4 0.8%
계	407 27.4%	407 27.4%	407 27.4%	185 12.5%	8 0.5%
	x^2		118.92***		

*** p<.001

위의 <표 IV-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해서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이라는 반응이 학부모 57.2%, 학생 54.4%, 교사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수업’이 학생 34.1%, 교사 27.5%, 학부모 20.9%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은 학생 5.8%, 학부모 10.9%인 반면, 교사는 21.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수업 형태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과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수업’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다.

사.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교사의 준비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선생님들이 더욱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7>와 같다.

<표 IV-7>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교사의 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충실한 수업을 위한 연구	학습 자료 제공을 위한 준비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바람직한 수업분위기 조성	미응답
학생	159 32.1%	103 20.8%	69 13.9%	155 31.3%	10 2.0%
학부모	267 52.1%	69 13.5%	67 13.1%	107 20.9%	1 0.2%
교사	285 59.7%	53 11.1%	81 17.0%	57 11.9%	1 0.2%
계	711 47.9%	225 15.2%	217 14.6%	319 21.5%	12 0.8%
	χ^2	118.78***			

*** p<.001

위의 <표 IV-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전체적으로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주체에 따라 교사 59.7%, 학부모 52.1%, 학생 32.1%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이 학생이 31.3%, 학부모 20.9%, 교사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교사와 학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 바람직한 교사상

‘가장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8>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V-8>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담당 과목의 실력이 뛰어남	인생을 살아 가는 자세를 가르쳐 줌	교육자로서 깊은 신념을 갖고 생활함	학생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줌	깊은 미움 대해줌
학생	80 16.1%	140 28.2%	67 13.5%	199 40.1%	10 2.0%
학부모	61 11.9%	119 23.2%	87 17.0%	243 47.5%	2 0.4%
교사	20 4.2%	144 30.2%	94 19.7%	212 44.4%	6 1.3%
계	161 10.8%	403 27.1%	248 16.7%	654 44.0%	18 1.2%
	χ^2	53.86***			

*** p<.001

위의 <표 IV-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선생님’이 학부모 47.5%, 교사 44.4%, 학생 40.1%로 나타났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사 30.2%, 학생 28.2%, 학부모 23.2%로 나타났다. 이어서 ‘담당 과목에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은 학생 13.5%, 학부모 11.9%, 교사 4.2%로 나타났다.

자. 교사의 지도력 향상

‘선생님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9>와 같다.

<표 IV-9> 교사의 지도력 향상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꾸준한 연구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	사회단체 활동	특기 배양 활동	미응답
학생	155 31.3%	247 49.8%	47 9.5%	42 8.5%	4 0.8%
학부모	288 56.3%	183 35.7%	20 3.9%	18 3.5%	2 0.4%
교사	279 58.5%	183 35.7%	20 3.9%	8 1.7%	4 0.8%
계	722 48.6%	610 41.1%	73 4.9%	68 4.6%	10 0.7%
	χ^2	123.82***			

*** p<.001

위의 <표 IV-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선생님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연구 활동’이 교사 58.5%, 학부모 56.3%, 학생 31.3%의 반응이 나타났다.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학생 49.8%, 학부모 35.7%, 교사 39.9%의 반응이 나타났다. 교사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는 ‘꾸준한 연구 활동’이, 학생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차. 교사의 사명감

‘선생님들이 교육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0>와 같다.

<표 IV-10> 교사의 사명감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스스로의 연찬을 통한 자긍심 배양	효과적인 연수 제도 마련	교사를 우대하는 보상책 마련	교사에 대한 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미응답
학생	128 25.8%	144 29.0%	128 25.8%	86 17.3%	1 0.2%
학부모	173 33.8%	138 27.0%	103 20.1%	89 17.4%	2 0.4%
교사	192 40.3%	52 10.9%	101 21.2%	128 26.8%	1 0.2%
계	493 33.2%	334 22.5%	332 22.1%	303 20.4%	4 0.3%
	χ^2		79.29***		

*** p<.001

위의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교사 스스로의 연찬을 통한 자긍심 배양’이 교사 40.3%, 학부모 33.8%, 학생 25.8%의 반응이 나타났다. ‘효과적인 연수 제도 마련’은 학생 29.0%, 학부모 27.0%, 교사 10.9%로 나타났으나,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도 전체적으로 20.4%의 반응이 나타났다.

2. 학교 교육의 운영면

가.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1>와 같다.

<표 IV-11>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학생의 특기와 소질 신장	학업 성취	올바른 인성 함양	진로·진학 지도	미응답
학생	198 39.9%	92 18.5%	41 8.3%	160 32.3%	1 0.2%
학부모	157 30.7	125 24.4%	84 16.4%	141 27.5%	2 0.4%
교사	137 28.7%	100 21.0%	171 35.8%	64 13.4%	1 0.2%
계	492 33.4%	317 21.3%	296 19.9%	365 24.6%	4 0.3%
χ^2			151.02***		

*** p<.001

위의 <표 IV-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 대하여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올바른 인성 함양’이 교사는 35.8%, 학부모는 16.4%, 학생은 8.3%의 반응이 나타났다. 반면 ‘진로·진학지도’에는 학생 32.3%, 학부모 27.5%, 교사 13.4%의 반응이 나타났다. ‘학생의 특기와 소질 신장’은 학생의 39.9%, 학부모 30.7%, 교사 28.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특기·소질 신장’과 ‘진로·진학지도’를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교사는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생의 특기·소질 신장’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나. 바람직한 학교

‘바람직한(효과적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바람직한 학교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교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잘되는 학교	전통이 있고 자긍심 가질 수 있는 학교	학교 시설이 나 환경이 좋은 학교	미응답
학생	171 34.5%	174 35.1%	56 11.3%	86 17.3%	1 0.2%
학부모	205 40.0%	225 43.9%	44 8.6%	33 6.4%	0
교사	129 27.0%	257 53.9%	49 10.3%	28 5.9%	2 0.4%
계	505 34.0	656 44.2%	149 10.0%	147 9.9%	3 0.2%
	χ^2		81.01***		

*** $p < .001$

위의 <표 IV-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생활 지도가 잘되고 인성이 좋아지는 학교’라는 반응이 교사는 53.9%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는 43.9%, 학생은 35.1%로 나타났다. ‘학습지도를 잘하여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교’은 학부모 40.0%, 학생 34.5%, 교사 27.0%로 나타났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잘되는 학교’를 바람직한 학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잘되는 학교’는 물론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바람직한 학교로 인식하고 있다.

다. 학생의 학력 향상 방안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3>와 같다.



<표 IV-13> 학생의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스스로 꾸준히 학습함	학교에서 학습을 철저히 함	학습자료나 매체 활용	과외나 학원수강	미응답
학생	322 64.9%	92 18.5%	66 13.3%	13 2.6%	0
학부모	370 72.3%	71 13.9%	46 9.0%	22 4.3%	1 0.2%
교사	403 84.5%	45 9.4%	26 5.5%	1 0.2%	0
계	1095 73.7%	208 14.0%	138 9.3%	36 2.4%	1 0.1%
	x^2		62.837***		

*** p<.001

위의 <표 IV-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반응이 전체적으로 7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교사는 84.5%, 학부모는 72.3%, 학생 64.9%로 인식 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철저히 한다.’는 반응이 학생은 18.5%, 학부모 13.9%, 교사 9.4% 순으로 나타났다.

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투자하기를 가장 바라는 분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4>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V-14>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잡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미응답
학생	322	46	11	106	2
	64.9%	9.1%	2.2%	21.4%	0.4%
학부모	245	63	21	179	2
	47.9%	12.3%	4.1%	35.0%	0.4%
교사	145	233	25	70	1
	30.4%	48.8%	5.2%	14.7%	0.2%
계	712	341	57	355	5
	47.9%	23.0	3.8%	23.9%	0.3%
χ^2			3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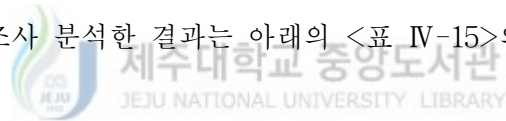
*** p<.001

위의 <표 IV-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교육주체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이 학생은 64.9%로 나타났다으나, 학부모 47.9%, 교사는 30.4%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는 ‘수업 시수 및 잡무 경감’이 48.8%로 나타났다으나 학부모는 12.3%, 학생은 9.1%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교사는 ‘수업 시수 및 잡무 경감’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심화반 운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방과 후에 특강이나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심화반 운영’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심화반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미응답
학생	74 14.9%	113 22.8%	89 17.9%	197 39.7%	0
학부모	127 24.8%	184 35.9%	79 15.4%	108 21.1%	5 1.0%
교사	140 29.4%	156 32.7%	83 17.4%	91 19.1%	0
계	341 23.0%	453 30.5%	251 16.9%	396 26.7%	5 0.3%
	χ^2	108.65***			

*** $p < .001$

위의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교육 주체들의 인식 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01$). 교사는 적극 찬성과 찬성을 합하여 62.1%, 학부모는 60.7%로 비교적 찬성이 많은 반면 학생은 찬성이 37.7%로 나타났다. 학생이 찬성이 적은 것은 심화반에 들지 못하는 중하위 성적의 학생들이 반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진로 진학을 위한 준비

‘학생이 진로 준비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진로 진학을 위한 준비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특기와 소질 계발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	학력 향상	올바른 심성 배양	미응답
학생	228 46.0%	84 16.9%	169 34.1%	12 2.4%	0
학부모	190 37.1%	66 12.9%	227 44.3%	28 5.5%	0
교사	212 44.4%	73 15.3%	146 30.6%	45 9.4%	0
계	630 42.4%	223 15.0%	542 36.5%	85 5.7%	0
	χ^2	44.65***			

*** $p < .001$

위의 <표 IV-1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이 진로 준비를 위해서 가장 노력할 사항에 대해서 ‘학생의 특기와 소질 계발’이 학생은 46.0%, 교

사는 44.4% 학부모는 37.1%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 향상’이 학부모 44.3%, 학생 34.1%, 교사 30.6%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001$).

학부모는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서 ‘학력 향상’이, 학생과 교사는 ‘특기와 소질 계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 인성교육 효과가 미흡한 원인

‘인성 교육의 효과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7>와 같다.

<표 IV-17> 인성교육 효과가 미흡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인성교육 프로그램 부재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결여	인성 교육에 대한 정책 부실	미응답
학생	347 70.0%	71 14.3%	42 8.5%	33 6.7%	0
학부모	377 73.6%	58 11.3%	36 7.0%	38 7.4%	1 0.2%
교사	328 68.8%	56 11.7%	28 5.9%	53 11.1%	4 0.8%
계	1052 70.8%	185 12.5%	106 7.1%	124 8.4%	5 0.3%
χ^2			22.741***		

*** $p<.001$

위의 <표 IV-1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성교육의 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전체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학부모 73.6%, 학생 70.0%,

교사 68.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가 학생 14.3%, 교사 11.7%, 학부모 11.3%로 나타났다.

아. 바람직한 인성 교육 방안

‘인성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 방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8>와 같다.

<표 IV-18> 바람직한 인성 교육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학교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실시	청소년수련 원을 정기적 으로 이용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지 도를 받음	미응답
학생	216 43.5%	147 29.6%	40 8.1%	81 16.3%	0
학부모	296 57.8%	66 12.9%	39 7.6%	97 18.9%	4 0.8%
교사	275 57.7%	75 15.7%	20 4.2%	64 13.4%	7 1.5%
계	787 53.0%	288 19.4%	99 6.7%	242 16.3%	11 0.7%
	χ^2		96.10***		

*** p<.001

위의 <표 IV-1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학부모 57.8%, 교사 57.7%, 학생 43.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수련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함’이 학생 29.6%, 교사 15.7%, 학부모 12.9%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를 더 바라고 있다.

자. 바람직한 학생 지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9>와 같다.

<표 IV-19> 바람직한 학생 지도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관심, 사랑으로 지도함	원칙에 따라 엄하게 지도함	신상필벌을 일 관성 있게 적 용하여 지도함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 으로 지도함	미응답
학생	328 66.1%	22 4.4%	28 5.6%	115 23.2%	1 0.2%
학부모	390 76.2%	24 4.7%	16 3.1%	82 16.0%	0
교사	381 79.9%	11 2.3%	32 6.7%	51 10.7%	0
계	1099 74.0%	76 3.8%	76 5.1%	248 16.7%	1 0.1%
χ^2			44.69***		

*** p<.001

위의 <표 IV-1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학생 지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함’이 교사 79.9%, 학부모 76.2%, 학생 66.1%로 나타났다. 반면 ‘상황이나 학생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함’이 학생 23.2%, 학부모 16.0%, 교사 10.7%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상황이나 학생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에 더 많은 반응이 나타난 것은 학생마다 성격, 취향 등이 다양하다는 것을 학교생활 속에서 직접 겪으며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차.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 배양 방법

‘청소년들이 올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0>과 같다.

<표 IV-20>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 배양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부모님의 모범적인생활 과 가정교육	학교에서 각종 활동을 통한 지도	좋은 친구나 선후배와의 건전한 활동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	미응답
학생	118 23.8%	45 9.1%	144 29.0%	183 36.9%	0
학부모	270 52.7%	33 6.4%	67 13.1%	139 27.1%	0
교사	312 65.4%	21 4.4%	5 1.0%	135 28.3%	0
계	700 47.1%	99 6.7%	216 14.5%	457 30.8%	0
	χ^2		244.91***		

*** p<.001

위의 <표 IV-2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이 학부모 52.7%, 교사 65.4%, 학생 23.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과 ‘좋은 친구나 선후배와의 건전한 활동’이, 학부모와 교사는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

가. 수준별 수업의 효과

‘수준별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36 7.3%	106 21.4%	205 41.3%	93 18.8%	56 11.3%	0
학부모	67 13.1%	164 32.0%	192 37.5%	72 14.1%	16 3.1%	1 0.2%
교사	36 7.5%	154 32.3%	194 40.7%	74 15.5%	18 3.8%	1 0.2%
계	139 9.4%	424 29.6%	591 39.8%	239 16.1%	90 6.1%	2 0.1%
χ^2	64.50***					

*** p<.001

위의 <표 IV-2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대체로 효과가 있다’라는 반응이 교사 32.3%, 학부모 32.0% 학생 21.4%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효과가 있다’는 학부모 13.1%, 교사 7.5%, 학생 7.3%의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27 5.4%	91 18.3%	245 49.4%	92 18.5%	37 7.5%	4 0.8%
학부모	22 4.3%	146 28.5%	249 48.6%	70 13.7%	16 3.1%	9 1.8%
교사	25 5.2%	251 52.6%	178 37.3%	19 4.0%	0	4 0.8%
계	74 5.0%	488 32.9%	672 45.3%	181 12.2%	53 3.6%	17 1.1%
χ^2	186.63***					

*** p<.001

위의 <표 IV-2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체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반응이 교사 52.6%, 학부모 28.5%, 학생 18.3%로 나타났다. 교사에 비해 학생의 반응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과외 수강의 필요성

‘과외 수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3>과 같다.

<표 IV-23> 과외 수강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104 21.0%	142 28.6%	132 26.6%	81 16.3%	35 7.1%	2 0.4%
학부모	112 21.9%	165 32.2%	137 26.8%	74 14.5%	18 3.5%	6 1.2%
교사	88 18.4%	240 50.3%	100 21.0%	37 7.8%	5 1.0%	7 1.5%
계	304 20.5%	547 36.8%	369 24.8%	192 12.9%	58 3.9%	15 1.0%
χ^2	82.26***					

*** p<.001

위의 <표 IV-2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면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교사 68.7%, 학부모 54.1%, 학생 49.6%로 나타나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교사에 비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과외 수강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문제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

‘문제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의 선도’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4>와 같다.

<표 IV-24> 문제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35 7.1%	81 16.3%	181 36.5%	142 28.6%	57 11.5%	
학부모	28 5.5%	99 19.3%	203 39.6%	146 28.5%	30 5.9%	6 1.2%
교사	22 4.6%	205 43.0%	203 42.6%	42 8.8%	2 0.4%	3 0.6%
계	85 5.7%	385 25.9%	587 39.5%	330 22.2%	89 6.0%	9 0.6%
x^2	196.98**					

*** p<.001

위의 <표 IV-2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문제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선도해 주고 있다’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이 학생 16.3%, 학부모 19.3%, 교사 43.0%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교사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선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마. 학교 폭력 발생 여부

‘집단 따돌림, 폭행,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교육주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5>와 같다.

<표 IV-25> 학교 폭력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24 4.8%	51 10.3%	117 23.6%	174 35.1%	129 26.0%	1 0.2%
학부모	15 2.9%	37 7.2%	98 19.1%	205 40.0%	142 27.7%	15 2.9%
교사	5 1.0%	18 3.8%	67 14.0%	290 60.8%	94 19.7%	3 0.6%
계	44 3.0%	106 7.1%	282 19.0%	669 45.1%	365 24.6%	19 1.3%
x^2				102.03***		

*** p<.001

위의 <표 IV-2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학생 15.1%, 학부모 10.1%, 교사 4.1% 반응을 보여 학교 폭력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학생 35.1%, 학부모 40.0%, 교사 60.8%로 나타나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001).

바. 체벌의 필요성

‘학생 지도를 위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68 13.7%	154 31.0%	191 38.5%	49 9.9%	30 6.0%	4 0.8%
학부모	70 13.7%	203 39.6%	163 31.8%	51 10.0%	13 2.5%	12 2.6%
교사	67 14.0%	225 47.2%	121 25.4%	55 11.5%	8 1.7%	1 0.2%
계	205 13.8%	582 39.2%	175 32.0%	155 10.4%	51 3.4%	17 1.1%
χ^2	56.06***					

*** p<.001

위의 <표 IV-2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이 잘못했을 때 바른 지도를 위해서 체벌은 필요하다’는 반응이 교사 61.2%, 학부모 53.3%, 학생 44.7%로 나타났다. 교육주체 간에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감정적이지 않으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는 체벌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교사에 비해서 체벌에 반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7>와 같다.

<표 IV-27> 학교 운영 의견 수렴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47 9.5%	146 29.4%	212 42.7%	68 13.7%	22 4.4%	1 0.2%
학부모	25 4.9%	144 28.1%	270 52.7%	47 9.2%	13 2.5%	13 2.5%
교사	19 4.0%	180 37.7%	201 42.1%	66 13.8%	10 2.1%	1 0.2%
계	91 6.1%	470 31.6%	683 46.0%	181 12.2%	45 3.0%	15 1.0%
χ^2				58.95***		

*** p<.001

위의 <표 IV-2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6.1%, '대체로 그렇다' 31.6%, '보통이다' 46.0%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그렇다'의 반응이 교사 37.7%, 학생 29.4%, 학부모 28.1%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운영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과 협의, 기타 여론 수렴 방법이 있으나 학교장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풍토가 달라지고 구성원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도의 차이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8>과 같다.

<표 IV-28>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24 4.8%	98 19.8%	249 50.2%	82 16.5%	42 8.5%	1 0.2%
학부모	23 4.5%	160 31.3%	262 51.2%	45 8.8%	9 1.8%	13 2.5%
교사	15 3.1%	185 38.8%	219 45.9%	51 10.7%	5 1.0%	2 0.4%
계	62 4.2%	443 29.8%	730 49.2%	178 12.0%	56 3.8%	16 1.1%
x^2	106.53***					

*** p<.001

위의 <표 IV-2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과과정이나 부서운영, 행사 등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학부모 35.8%, 교사 31.9%, 학생 24.6%로 나타났다.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주체들은 학교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자. 대학입학 전형 제도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대입제도’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9>와 같다.

<표 IV-29> 대학입학 전형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35 7.1%	73 14.7%	195 39.3%	87 17.5%	103 20.8%	3 0.6%
학부모	23 4.5%	94 18.4%	201 39.3%	125 24.4%	61 11.9%	8 1.6%
교사	31 6.5%	144 30.2%	176 36.9%	85 17.8%	41 8.6%	
계	89 6.0%	311 20.9%	572 38.5%	297 20.0%	205 13.8%	11 0.7%
χ^2	77.89***					

*** p<.001

위의 <표 IV-2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대입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교사 36.7%, 학부모 22.9%, 학생 21.8%로 나타났다. 교육주체들은 대체로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를 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차. 대학입시제도의 변경

'대학 입시 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30>과 같다.

<표 IV-30>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에 대한 분석 결과

주체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미응답
학생	139 28.0%	120 24.2%	135 27.2%	70 14.1%	29 5.8%	3 0.6%
학부모	233 45.5%	152 29.7%	79 15.4%	35 6.8%	10 2.0%	3 0.6%
교사	221 46.3%	203 42.6%	44 9.2%	7 1.5%	1 0.2%	1 0.2%
계	593 39.9%	475 32.0%	258 17.4%	112 7.5%	40 2.7%	7 0.5%
χ^2				183.80***		

*** p<.001

위의 <표 IV-3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학 입시 제도는 신중히 결정하고 한번 결정하면 오래 지속해야한다’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하여 교사는 88.9% 학부모는 75.2%, 학생은 52.2%로 대입제도를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에 비해 학생이 낮은 반응을 나타낸 것은 현행 대입제도 역시 학생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 제도는 ‘교육 백년지대계’의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사·학부모·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 점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교육관의 영역을 ‘교육에 대한 가치면’, ‘학교 교육의 운영면’,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으로 나누고 하위 항목을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중 교사는 제주시내 12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477명을 대상으로 하여 하였고, 학생은 제주시내 5개 고등학교 학년별 1개 반씩을 선정하여 4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부모는 제주시내 거주하는 학부모 512명을 대상으로 총 148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교육에 대한 가치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과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을, 학부모와 교사는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과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다.

둘째,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 학생은 ‘전공 분야 실력이 뛰어난 인물’을, 학부모는 ‘친화력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회적 인물’을, 교사는 ‘양심

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보고 있다.

셋째, 바람직한 청소년의 심성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은 '밝고 긍정적인 심성'을, 교사는 '남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가장 함양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나타났다.

넷째,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에 대해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함'이 학생은 54.0%, 학부모는 62.7%, 교사는 35.4%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는 '다양한 지식과 체험을 통한 인격 형성'이 32.5%로 나타났다. 교사는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함'과 '다양한 지식과 체험을 통한 인격 형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성에 맞는 전공'이 학생은 59.7%, 학부모는 58.6%, 교사는 7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래성 있는 학과'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해서,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이 학생은 54.4%, 학부모는 87.2%, 교사는 53.0%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수업'이 학생 34.1%, 학부모 20.9%, 교사 27.4%로 나타났다.

일곱째,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위한 연구'가 학생은 32.1%, 학부모는 52.1%, 교사는 59.7%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이 학생은 31.3%, 학부모는 20.9% 교사는 17.0%로 나타났다.

여덟째,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선생님'이 학생은 40.1%, 학부모는 47.5%, 교사는 44.0%로 나타났다.

교육주체들은 가장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아홉째, 선생님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연구 활동’이 학부모는 56.3%, 교사는 58.5%, 학생은 31.3%로 나타났다.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학생 49.8%, 학부모 35.7%, 교사 35.7%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 스스로의 연찬을 통한 자긍심 배양’이 학생 25.8%, 학부모 33.8%, 교사 40.3%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연수 제도 마련’은 학생 29.0%는, 학부모 27.0%, 교사 10.9%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학교 교육 운영 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학생의 특기와 소질 신장’이 학생은 39.9%, 학부모는 30.7%, 교사는 28.7%로 나타났다. ‘올바른 인성 함양’은 학생 8.3%, 학부모 16.4%, 교사는 35.8%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바람직한 학교에 대해서, ‘생활지도가 잘되고 인성이 좋아지는 학교’가 학생은 35.1%, 학부모는 43.9%, 교사는 53.9%로 나타났다.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교’는 학생 34.5%, 학부모 40.0%, 교사 27.0%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 스스로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 형성’이 학생 64.9%, 학부모 72.3%, 교사 84.5%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철저히 함’이 18.5%로, 학부모 13.9%, 교사 9.4%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학생은 64.9%, 학부모는 47.9%, 교사는 30.4%가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교사는 48.8%가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잡무 경감’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타났으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우수한 학생을 학년별 1개 반을 선발하여 특별 지도하는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교사는 62.1%, 학부모는 60.7%, 학생은 37.7%가 찬성하고 있으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이 찬성이 적은 것은 성적이 중하위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여섯째, 학생이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서, ‘특기와 소질 계발’이 학생은 46.0%, 학부모는 37.1%, 교사는 44.4%로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 향상’이 학생 34.1%, 학부모 44.3%, 교사 30.6%로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일곱째, 인성교육의 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학생 70.0%, 학부모 73.6%, 교사 68.8%가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 있음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라고 교육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덟째,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을 학생 43.5%, 학부모 57.8%, 교사 57.7%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청소년 수련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29.6%로 학부모 12.9%, 교사 1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학생 지도에 대해서, ‘학생들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함’이 학생 66.1%, 학부모 76.2%, 교사 79.9%로 나타났다.

열 번째, 청소년들이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이 학생은 23.8%, 학부모는 52.7%, 교사는 65.4%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학생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이 36.9%로 학부모 27.1%, 교사 28.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에서 조사 분

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효과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반응이 학생 28.7%, 학부모 45.1%, 교사 39.8%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생님의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고 있다.’는 교사 57.8%, 학부모 32.8%, 학생 23.7%로 반응이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면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교사 68.7%, 학부모 54.1%, 학생 49.6%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문제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선도해 주고 있다’에 대한 반응이 교사 49.6%, 학부모 24%, 학생 23.4%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금품 빼앗기, 폭행,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응이 학생 15.1%, 학부모 10.1% 교사 4.8%로 나타나 일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이 일부 일어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교사 61.2%, 학부모 53.3%, 학생 44.7%로 나타나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학생 38.9%, 학부모 32.9%, 교사 41.7%로 나타나, 학교 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덟째, ‘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반응이 학생 24.6%, 학부모 35.8%, 교사 31.9%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상대 평가 방식의 대입제도’에

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학생 21.8%, 학부모 22.9%, 교사 36.7%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열 번째, ‘대학 입시제도는 신중히 결정하고 자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교사 88.9%, 학부모 75.2%, 학생 52.2%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반응이 낮은 것은 현행 대입 제도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결론

교육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관이나 올바른 심성 배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교사와 학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과 가정교육’, ‘좋은 친구나 선후배와의 건전한 활동’,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 선도와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문제 학생에 대한 선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학생 폭력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라고 교육주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충실한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연구’와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자재

확충'과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잡무 경감,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반영되고 실현되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로와 대학 진학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이 바라는 '적성에 맞고 잠재성 있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특기·소질 계발과 학력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과외 수강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교사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높게 나타나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입시 제도는 '신중히 결정하고 자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주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 제도는 '교육 백년지대계'의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것을 종합해 볼 때, 교육주체들은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이나 특기·소질 계발을 통한 '진로·진학 교육'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주체 간에 '교육에 대한 가치관, 학교 교육의 운영, 교육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이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주체들은 '혼과 혼의 대화, 정성과 정성의 호흡, 정열과 정열의 만남'으로 가치관의 이질성과 대립을 줄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개방적 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방향 감각을 기르고 교육에 대한 신념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기수(1998). **인간학적 교사론**. 서울: 세종출판사.
- 남궁용권(1997). **신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 김경갑(1987).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구(2000). **교사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의(1988).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관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 외(1981).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교육출판사.
- 박준희(1975). **한국인의 교육관**. 서울: 실학사.
- 배천웅 외(1976).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서울: 정민사.
- 박윤도(1990).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천석(1973). **교육철학신강**. 서울: 교학사.
- 이돈희(1985). **교육관의 변화와 과제**.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인호(1980). **교육관의 유형·갈등 및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재 외(1980). **한국인의 교육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범모(1972).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1988). **교사론**. 서울: 배연사.
- 정원식 외(1983). **교직과 사도**.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정재걸(2001). **만두모형의 교육관**.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정헌중(1993).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관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흥기(1990). **교원의 교육관·교직원 조사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숙(1983). **사립학교의 건학정신과 교육관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 Turner. J. H. (1974).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London: The Dorsey Press
- Singleton. J. and Lee. C. J. (1979). *Social constructions of schooling: Competing images in Korean education*. Academy of Korean Studies.
- Schutz. S.(1973). *Collected papers I: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Netherlands : Martinus Mijho
- Parsons. T.(1962).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Abstract>

A Study on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Views on Educational Matters in Jeju Community

Jung, Hee Bok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ong Pi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views on educational matters and how differently they think on the matter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preceding study with the assistance of the academic advisor.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0 questions and 1,485(477 teachers, 496 students and 512 parents)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eachers need to have a good grip of the realities of students' misconduct and give them proper guidance as well.

Second, teachers need to make efforts to trust students and parents with deep concern and love, which leads to effective educational activities.

Third,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eachers need to spend much more time on preparing classroom instruction and encourag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5, 2005

students for making more desirable classroom atmosphere. Also it is required to reduce teachers' classroom hours and other works which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lassroom instruction.

Fourth, for private education,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take action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and to improve public education. Also, teachers should manage effective classes based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ry to impro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ifth, the college entrance system should be made with prudent consideration and it shouldn't change frequently. The system should be determined with deep consideration on the point that 'Education is a great scheme ahead of 100 years'.

Finally, there must be an attitude of tolerating the differences and accepting variousness with 'Conversation between spirits, Breath of earnestness, Meeting with passions'. And a good sense of the times and a good philosophy of education are required.

< 부 록 >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에 관한 설문(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은 논문 작성과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의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정 희 복 올림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1. 직위 : ① 교사 () ② 부장 교사 () ③ 교감, 교장 ()
2. 교육 경력 : ① 10년 이하 () ② 11-20년 ()
③ 21-30년 () ④ 30년 이상 ()
3. 근무 학교 : ① 국·공립 () ② 사립 ()
① 일반계 () ② 실업계 ()
4.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V'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 속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뚝뚝하고 신뢰받으며 사는 것 ()
- ②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
- ③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 ()
- ④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 ()
- ⑤ 기타 ()

2. 학생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 ① 전공 분야에 실력이 뛰어난 인물 ()
- ②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 ()
- ③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인물 ()
- ④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회적인 인물 ()
- ⑤ 기타 ()

3. 청소년기에 어떠한 심성이 함양되기를 가장 바라십니까?

- ① 밝고 긍정적인 심성 ()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
- ③ 원만한 대인 관계와 친화력 ()
- ④ 인내심과 자립심 ()
- ⑤ 기타 ()

4.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첫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함 ()
- ②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함 ()
- ③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배양함 ()
- ④ 폭넓은 교양과 경험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함 ()
- ⑤ 기타 ()

5. 학생이 진학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의 수준 ()
- ② 장래성 있는 학과 ()
- ③ 적성에 맞는 전공 ()
- ④ 합격 가능성 ()
- ⑤ 기타 ()

6. 가장 바람직한 수업은 어떤 형태의 수업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수업 ()
- ②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 ()
- ③ 학습 자료나 교육 기자재를 잘 활용하는 수업 ()
- ④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수업 ()
- ⑤ 기타 ()

7.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선생님들은 어느 분야에 더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실한 수업을 위한 연구 ()
- ② 학습 자료 제공을 위한 준비 ()
- ③ 교수-학습 방법 개선 ()
- ④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 조성 ()
- ⑤ 기타 ()

8. 가장 바람직한 교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담당 과목에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 ()
- ②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
- ③ 교육자로서 깨끗한 신념을 갖고 생활하시는 선생님 ()
- ④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 ()
- ⑤ 기타 ()

9. 선생님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꾸준한 연구 활동 ()
- ② 다양한 체험 활동 ()
- ③ 사회단체 활동 ()
- ④ 특기 배양 활동 ()
- ⑤ 기타 ()



10. 선생님이 교육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스스로의 연찬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배양 ()
- ② 효과적인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 ③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 ()
- ④ 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
- ⑤ 기타 ()

11.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의 특기와 소질 신장 ()
- ② 학업 성취(학력 향상) ()
- ③ 올바른 인성 함양 ()
- ④ 진로·진학 지도 ()
- ⑤ 기타 ()

12. 바람직한(효과적인) 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습 지도를 잘하여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교 ()
- ② 생활지도가 잘되고 인성이 좋아지는 학교 ()
- ③ 전통이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 ()
- ④ 학교 시설이나 학습 환경이 좋은 학교 ()
- ⑤ 기타 ()

13. 학생은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스스로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름 ()
- ②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을 철저히 함 ()
- ③ 학습 자료(교재)나 학습매체(교육방송, 인터넷 등)를 잘 활용함()
- ④ 과외나 학원 수업을 적절히 받음 ()
- ⑤ 기타 ()

14.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는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
- ②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잡무 경감 ()
- ③ 교원 처우 개선 ()
- ④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 ⑤ 기타 ()

15.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방과 후 특별 학습을 실시하는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함. ()
- ② 수준별 학습 취지에 맞아 찬성함 ()
- ③ 정상적인 교과 과정 운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대함 ()
- ④ 교육의 기회 균등에 어긋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적극 반대함 ()
- ⑤ 기타 ()

16. 학생이 진로 준비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기와 소질 계발·신장 () ②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 ()
- ③ 학력 향상 () ④ 올바른 심성 배양 ()
- ⑤ 기타 ()

17. 학교에서 인성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입시(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 ()
- ② 인성 교육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
- ③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결여 ()
- ④ 인성 교육에 대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 부실 ()
- ⑤ 기타 ()

18. ‘인성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에서 인성교육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실시함 ()
- ② 청소년 수련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함 ()
- ③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 ()
- ④ 외부 인사(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지도를 받음 ()
- ⑤ 기타 ()

19. 선생님들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들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함 ()
- ② 생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엄하게 지도함 ()
- ③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지도함 ()
- ④ 상황이나 학생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함 ()
- ⑤ 기타 ()



20. 청소년들이 올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
- ② 학교에서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
- ③ 좋은 친구나 선후배와의 건전한 활동 ()
- ④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 ()
- ⑤ 기타 ()

※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V’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수준별 수업은 효과가 있으며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22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생님의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23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을 충실히 하면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					
24	고민이 있거나 부적응·탈선 학생을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거나 선도해 주고 있다.					
25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 폭력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26	학생이 잘못했을 때 바른 지도를 위해서 체벌은 필요하다.					
27	우리 학교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8	우리 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29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대입제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0	대학입시제도는 신중히 결정하고, 자주 바꾸어서는 안 된다.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에 관한 설문(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은 논문 작성과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의 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복 올림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1. 자녀 재학 학교 : ① 일반계(인문계) () ② 실업계 ()
2. 자녀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3. 학부모님 연세 : ① 30대 () ② 40대 ()
③ 50대 () ④ 60대 ()
4. 학부모님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 설문 내용은 '교사용 설문'과 동일함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에 관한 설문(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주신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은 논문 작성과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의 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복 올림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1. 재학 학교 : ① 일반계(인문계) () ② 실업계 ()

2.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3.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 설문 내용은 '교사용 설문'과 동일함